

HIV 양성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

글_ 이 성 진 · 감염인/가명

레드리본은 HIV감염인·AIDS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보건
요원, 의료진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여섯 가지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 코너
는 상담 혹은 진료의 대상자인 감염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
떤 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접근해주었으면 효과적인지를 그
들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연중시리즈로 기획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고난과 시
련의 위기를 맞으며 살아가게 된다. 때론 준비하고 예감하
고 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않
았던 불행이 혼란과 고통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불현듯 찾
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HIV 역시 예고 없이 맞이하
게 되는 불청객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화 시 보건소 밝히지 않았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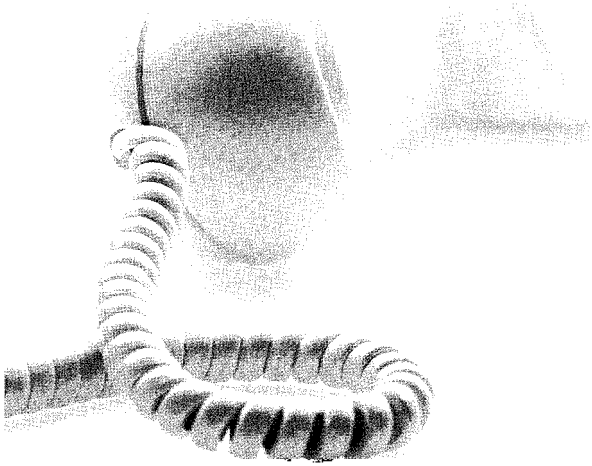
감염인들을 관리해야 하는 보건소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터이
지만 최초 통보시나 수개월 이상의 연락두절로 관리체계에
서 벗어난 감염인에게 재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감염인
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혹시 ○○○씨 계십니까? 여
기는 ○○○보건소입니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부모형제
와 영원히 결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전화조차 없었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담당자와의
대면을 기피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훨
씬 더 침착한 대응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건소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꼭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서 옥조이는 듯 감염인을 찾아내야만 하는 관리체계는 다
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혼자의 경우는 더더욱 쌍방간의 지루한 인내와 견제
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에게 어떻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부조
건적인 검사종용은 가정파탄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
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공중분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야
기시키므로 담당자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그럴 때는 꾸준한 대화를 이



최초 통보시나 수개월 이상의 연락두절로 관리체계에서 벗어난 감염인에게 재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감염인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혹시 〇〇씨 계십니까? 여기는 〇〇보건소입니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부모형제와 영원히 결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용한 상담을 하고 그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이제는 수용과 이해로 발전하여 정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한 동료 감염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냉랭한 역학조사

그리고 최초 역학조사 시 많은 감염인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 초기 감염인들은 최초 역학조사 시 많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담당자와의 연락기피와 면담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그것은 단지 HIV 감염으로 인한 충격과 좌절에서 오는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오래토록 진행되어오던 관행의 부담감과 노출의 두려움, 그리고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안정감 없는 면담의 요구는 다시금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저하게 하고 특히 감염경로의 사실적인 묘사는 초기 감염인을 가시방석에 앉혀 놓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최초 감염인은 보건소에 담당자를 만나러 가기까지 몇 날 며칠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타들어가는 입안에 독이든 가시를 물고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혼란과 절망으로 며칠을 보낸 감염인에게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위에 다른 감염인들 중 많은 수의 동성애자들은 감염경로가 이성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그날 그 서늘한 분위기에 억눌려 이성이라고 대답했으니까 말이다.

동성애라 밝힐 경우 눈빛 달라져

하지만 1개월 후에 다시 면담을 할 때는 감염경로가 동성애임을 피력하자 보건소 담당의 눈빛이 달라지고 관리의 강도가 강해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대화의 질과 차후관리의 강도가 강해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눈치 빠른 감염인들은 당연히 이성애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HIV/AIDS보다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점이 유교사상에 익숙한 사회 인식에서 기인하여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기피현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학조사와 같은 획일적이고 상투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HIV 감염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해와 성숙한 관심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HIV 감염인들에게 역학조사가 취조와 심문이 아닌 상담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또 강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조사와 취조식의 역학조사와 잦은 담당자의 변동은 HIV 감염인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면에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면담의 기피와 연락두절로 이어질 것이다.